

# 비스마르크 정권의 사회주의자탄압법(독일 사회주의노동자당)

○○

비스마르크 정권은 사회주의노동자당을 억압할 목표를 궁리했다. 이때 마침 아나키스트가 독일 황제를 저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부는 즉각 사회주의자탄압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모든 조직, 집회, 출판물을 금지한다는게 법안의 골자였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당명에 ‘사회주의’가 들어가니 자연히 이 당의 모든 조직, 집회, 출판물이 금지 대상이 됐다. 다만 당 활동 전체는 불법화되지는 않았다. 선거에 참여하고 의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허용됐다. 오직 지역조직을 만들고 옥내든 옥외든 사람을 모으며 신문, 잡지, 서적을 발간하는 것만 불가능했다.

여기에서 비스마르크 정권의 속내가 드러난다. 이들이 보기에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원내에서 소수당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직 그다지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 당이 기존 보수정당들에게 익숙한 원내활동 이외에 새로운 활동 영역을 열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당은 노동자들을 당원으로 대거 조직해 지역조직의 토론·여가·선전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메이데이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해 수시로 집회를 열어 사회주의 신문을 배포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정당이라 할만한 활동이 등장했다. 당시 독일 지배계급에게는 이것이 무엇보다 두렵고도 불길했다. 그래서 원내활동은 보장하되 원외활동 개척은 가로막았던 것이다.

탄압법이 통과되자 사회주의노동자당 의원들은 “우리는 이 법률 전체를 무시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불법화 된 당조직과 언론은 곧바로 지하활동에 돌입했다. 1880년 나라 밖인 스위스 비덴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는 “당은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고타강령>의 문구에서 “합법적인”이라는 말을 삭제해 비합법투쟁을 내외에 천명했다. (지구당은 간판을 내리는 대신 문화클럽, 여가클럽 등을 만들어 위장 활동을 벌였고 이 때문에 그 당시 주요활동가 대부분이 술집 주인이 됐다고 함)

공장 주변의 싸구려 선술집은 일과 후에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곳에서는 도수 높은 술은 취급하지 않는 대신 맥주를 팔았다.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당의 비합법 출판물이 튀어나오면 그 내용을 안주삼아 즉석 정치토론이 벌어졌다. 탄압법이 폐지된 뒤에도 이런 선술집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여흥과 회합의 장소로 즉 정치의 중심으로 남았다.

그런데 위에서도 말했듯이 탄압법은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원내활동과 원외활동을 구분해서 후자만을 억압했다. 이 점이 이후 사회민주당의 발전에 미묘하면서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스위스 비덴 대회의 결정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정권에 탄압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국가와 정면대결하는 노선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와 협력을 추구하는 라살주의는(라살은 노동계급의 적 자본가계급에 대항하기 위해선 비스마르크 황제 보수주의 정부와 연대해야한다 주장했다) 논쟁의 여지 없이 폐기 됐다. 기존 라살주의와 자주 대립했던 마르크스·엔겔스의 사상이 이제는 당 전체의 공식 이념으로 인정받았다. 즉 이념의 차원에서 사회주의노동자당은 급진화됐다.

그러나 실천의 차원에서는 이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탄압법 아래 정치활동 공간이 원내로 축소됐기 때문에 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더구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의원단이 실질적인 당 집행부가 됐다. 즉, 실천의 차원에서는 사회주의노동자당이 기성 제도정치에 더욱 깊이 결박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당의 이념과 실천이 뭔가 서로 엇나가기 시작했다.

이 악법은 당원들 사이에 탄압공포증이라고나 할 정서가 뿌리내리도록 만들었다. “조직을 지킨다”는 게 어느새 당의 제 1계명이 되었다. 조직을 지키고 선거에서 확실히 표를 늘려가면 “언젠가는” 혁명이 닥친다는게 독일 노동자들의 신앙이 됐다. 대규모 옥외 집회를 지레 두려워했고, 당원 자격도 불분명해졌으며, 탄압법의 잔재 때문에 중앙당과 지구당을 이어줄 광역지부 조직의 건설도 미뤄졌다. 결국 이는 열성당원의 비율을 1%~2%에 그치게 만들었다.

당대 독일 노동계급은 모순 또한 품고 있었는데 이념적으로 ‘과학적 사회주의’를 열렬히 받아들이고 미래에 닥칠 자본주의의 붕괴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꿈꾸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독일의 경제성장을 찬미했다고 함 그들의 비좁은 집에는 황제와 비스마르크 보수주의자의 초상이 마르크스, 엔겔스의 초상과 함께 걸려있었다고..

이게 바로 원내 활동에만 집착하게 되면 벌어지는 일 아닐까